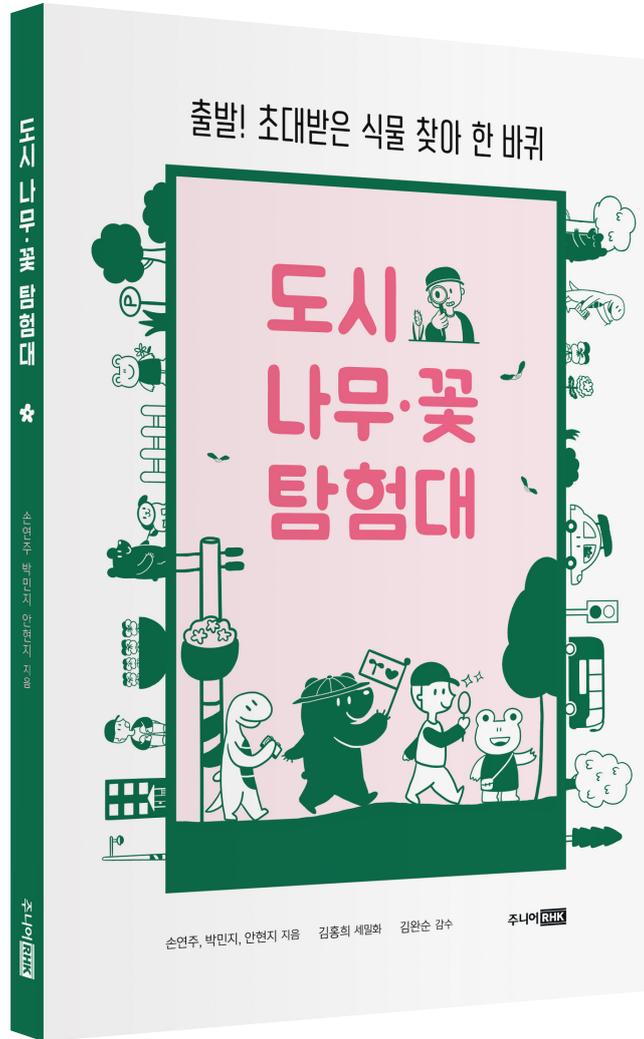


주니어RHK 독서 활동지 <도시 나무·꽃 탐험대>

식물 전문가 저자 집필·'함께 읽으면 더 좋은 책' 수록



도시 나무·꽃 탐험대 출발! 초대받은 식물 찾아 한 바퀴

손연주, 박민지, 안현지 지음 | 김홍희 세밀화 | 김완순 감수 | 140쪽 | 14,000원 | 초등 전 학년 대상
ISBN 978-89-255-7586-5 (74480) | 978-89-255-2418-4 (세트)



교과 연계 (아래 학년·과목·단원에 해당되지 않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 | | |
|--------------|--------------|--------------|---------------|
| 1-1 통합교과(봄) | 2. 도란도란 봄 동산 | 1-1 통합교과(여름) | 2. 여름 생활 |
| 2-1 통합교과(봄) | 2. 봄이 오면 | 2-1 통합교과(여름) | 2. 초록이의 여름 여행 |
| 2-2 통합교과(가을) | 2. 가을아 어디 있지 | 4-1 과학 | 3. 식물의 한살이 |
| 4-2 과학 | 1. 식물의 생활 | 6-1 과학 | 4. 식물의 구조와 기능 |

저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여러분은 식물도감을 끝까지 읽어 본 적 있나요?”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저희처럼 식물을 공부하고 식물의 세계에서 일하는 전문가도 두꺼운 식물도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는 힘들거든요. 원래 식물도감이란 궁금한 식물에 관한 정보를 찾으려고 펼치는, 재미와는 거리가 먼 학술적인 책이니까요. ‘그렇다면 모두에게 좀 더 재미있게 식물을 알려 줄 도감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쉽고, 무엇보다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식물도감 시리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 《도시 식물 탐험대》에서 보드블록, 하수구, 갈라진 벽 틈새에 옹기종기 스스로 자란 식물을 다뤘다면, 후속작 《도시 나무·꽃 탐험대》에는 우리가 도시에 초대한 길가의 가로수와 도로 화단의 화려한 식물을 담았습니다. 과연 이 나무와 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언제, 무슨 이유로 초대받았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름은 무엇이고 왜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걸까요?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의 나무와 꽃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였더니, 초록빛 보따리에 재미있는 식물 이야기들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초록빛 이야기보따리 《도시 나무·꽃 탐험대》와 함께 도시에 초대받은 나무 25종, 초대받은 꽃 25종을 탐험하게 될 거예요!

도시 식물을 관찰하다 보면 항상 같은 자리에서 곳곳하게 살아남는 식물에게 용기를 얻기도 하고, 계절이 변하는 것을 시시각각 느끼기도 합니다. 식물에서 얻은 작은 사실 하나하나가 우리를 또 다른 세상으로 연결해 주기도 하지요. 일상에서 무심히 지나치던 길이 식물 탐험의 장소로 바뀌는 기쁨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식물을 관찰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이라는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도시 나무·꽃을 탐험할 준비 됐나요?

손연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환경원예학을 공부한 뒤 서울식물원과 푸른수목원에서 가드너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성신여자대학교 식물분자계통학 연구실에서 식물을 연구하고 있으며, 랜선 식물 모임 ‘샐러드연맹’을 만들어 24절기 식물 뉴스레터와 식물 알림장을 공유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식물하는 삶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도시 식물 탐험대》와 이 책을 친구들과 함께 썼으며, 두 책에 만화를 그렸습니다.

인스타그램 @salad.yeonmaeng(샐러드연맹)

박민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환경원예학을 공부했고 지금은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자연을 벗 삼아 일하고 있습니다. 《도시 식물 탐험대》와 이 책을 친구들과 함께 썼으며, 두 책에 소켓을 그렸습니다.

안현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환경원예학을 공부한 뒤 생명과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도시 식물 탐험대》와 이 책을 친구들과 함께 썼습니다.

미션 1 : 도시 식물이 사는 곳을 찾아라!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면 도시에는 아주 많은 식물이 더불어 살고 있어요. 그중에는 우리가 초대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살아갈 공간을 찾아 뿌리를 내린 식물들도 있고, 사람들이 심기 위해 도시에 초대한 식물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초대받지 않은 식물과 초대받은 식물은 각각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① 초대받지 않은 식물이 어디에서 자라는지 생각해 본 뒤 빈칸에 써 봅시다.



② 초대받은 식물이 어디에서 자라는지 생각해 본 뒤 빈칸에 써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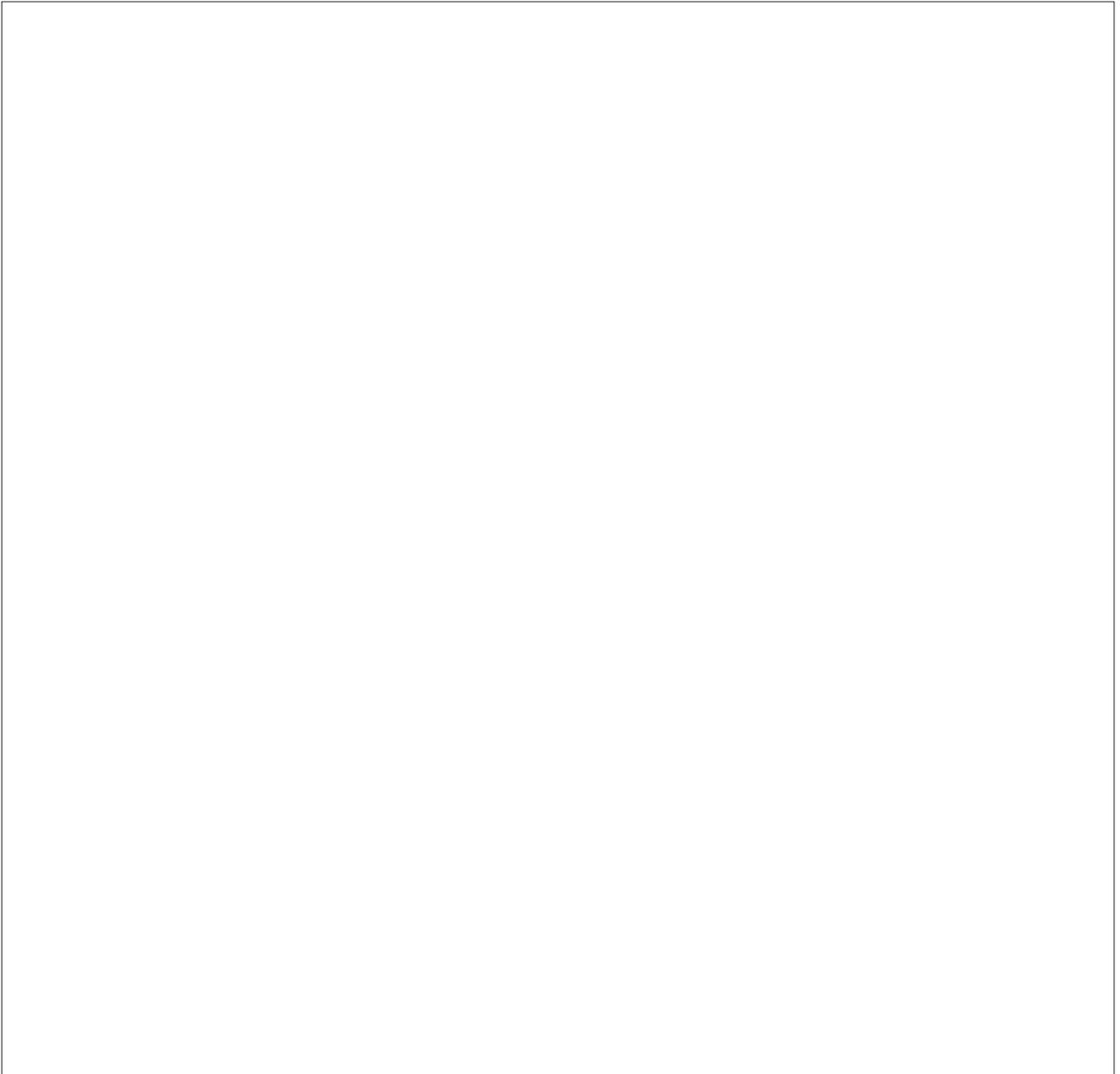
《도시 나무·꽃 탐험대》와 《도시 식물 탐험대》에서 식물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미션 2 : 가로수 아래 땅속 세상



우리는 날마다 도시의 아스팔트나 보도블록 위를 걸어요. 흙을 밟을 일이 거의 없죠. 그렇다면 보도블록 위의 가로수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까요? 보도블록 아래에는 가로수가 살기 적당한 흙이 있는 걸까요? 흙이 아닌 다른 것도 있을까요? 가로수가 자라는 보도블록 아래는 어떤 모습일지 땅속을 상상해서 그려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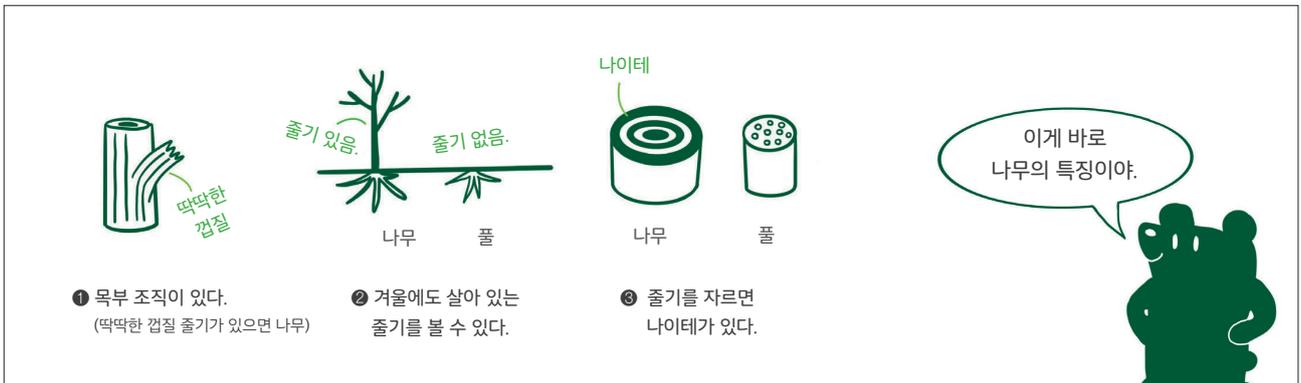
〈도시 나무·꽃 탐험대〉 27쪽, 51쪽을 참고하세요.



미션 3 : 풀일까, 나무일까?



풀과 나무에는 뿌리와 줄기가 있고, 잎과 꽃이 나요. 그렇다면 과연 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나무의 특징을 살펴본 다음, 아래의 식물들이 풀인지 나무인지 맞춰 보세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함께 적어 볼까요?



식물	풀 / 나무	이유
 바나나		
 대나무		
 야자수		
 선인장		
 장미		

《도시 나무·꽃 탐험대》 12-13쪽을 참고하세요.
정답은 맨 뒷장에 있어요.



미션 4 : 도시에 가로수가 없다면?



가로수는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도시에 초대해 심은 식물이예요. 길가에 줄지어 심은 가로수가 도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만약 도시에 가로수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본 뒤 생각 그물로 나타내 보세요. 떠오르는 것이 많으면 가지를 더 그려도 됩니다.

그들이 사라져
햇빛을 피할 수 없다.

도시에
가로수가
없다면?

〈도시 나무·꽃 탐험대〉 8-9쪽을 참고하세요.



미션 5 : 생물 자원 법정으로 오세요!



생물 자원을 놓고 A 나라와 B 나라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어요! 아래 만화를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지지하는 주장을 선택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적어 보세요.



주장 1 : A 나라의 자원을 함부로 가져간 B 나라가 잘못했어.

주장 2 : B 나라는 식물을 더 튼튼하고 아름답게 개량했을 뿐 잘못이 없어.

나는 주장 _____ 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_____

《도시 나무·꽃 탐험대》 25쪽, 74-75쪽을 참고하세요.



미션 6 : 도전! 도시 나무·꽃 퀴즈



퀴즈를 풀며 탐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퀴즈 1] 아래 내용은 어떤 나무를 설명하고 있나요?

- 꽃이 튤립을 닮아 ‘튤립나무’라고도 불린다.
- 이산화 탄소를 많이 흡수해 ‘탄소 통조림’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 꽃이 높은 가지 끝에서 피어서 관찰하기 쉽지 않다.

- ① 배롱나무 ② 라일락 ③ 백합나무 ④ 쥐똥나무 ⑤ 이팝나무



[퀴즈 2] 꽃양배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 ① 겨울철 도시의 화단에서 흔히 볼 수 있다.
- ② 쌈 채소로 잘 알려진 케일을 개량해 만든 식물이다.
- ③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콜라비 등과 친척이다.
- ④ 노란색 꽃을 피운다.
- ⑤ 거리 화단의 꽃양배추는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퀴즈 3] 탐험대원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고 무엇을 설명하는지 OOOO에 써 보세요.



○ ○ ○ ○

[퀴즈 4]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 산에서 자라는 나무를 베어다 가로수로 심는다. ()
- 도로와 공원에 망고나무를 심는 나라가 있다. ()
- 양귀비와 꽃양귀비 중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양귀비이다. ()
- 꽃이 여느 때보다 일찍 피어도 다른 생물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 도시 화단의 꽃은 겨울 동안 온실에서 키운다. ()

정답은 맨 뒷장에 있어요.



함께 읽으면 더 좋은 책

《도시 나무·꽃 탐험대》와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을 소개합니다.

식물 탐험대의 첫 번째 이야기와 환경에 관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이 책들을 함께 읽어 보세요.



식물 찾아 건재! 우리 동네 한 바퀴
도시 식물 탐험대

“재미있고, 쉽고,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식물도감”

소설가 정세랑×식물 세밀화가 이소영×과학 저술가 하리하라 추천

초대한 적 없지만 아파트 화단, 놀이터, 길가의 콘크리트 벽이나 보도블록 틈새 등 우리 주변에서 곳곳하게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식물들을 소개하는 색다른 식물도감. 귀엽고 사랑스러운 캐릭터와 만화적 연출, 세밀화와 소켓 등 다채로운 구성을 통해 식물의 생김새, 식물의 특징, 식물 이름의 유래, 식물 고유의 특징, 신기하고 재미있는 사실, 건강이나 먹거리와 관련된 정보 등 다채로운 ‘과학 지식’과 ‘흥미로운 정보’를 균형감 있고 풍성하게 전달한다.

손연주, 박민지, 안현지 지음 | 김완순 감수

- ★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
- ★ 한국출판문화상 편집 부문 최우수보좌
- ★ 중국 판권 수출
- ★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같이 알자! 같이 하자!
열두 달 지구하자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환경 주제 BEST 12”

현직 교사 홍세영×이해인×유새영×심정은×오제이 추천

‘한 달에 환경 문제 하나 배우고, 하루에 한 번 실천하자!’라는 콘셉트로, 환경을 위한 우리의 작은 행동이 지구 환경 보호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어린이 정통 환경 논픽션. 현직 초등교사이자 지구하자환경교육연구회에서 활동하는 저자 두 명이 현장 경험과 접목해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도록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여기에 《기후위기인간》 에코작가 구희의 위트 있는 일러스트가 더해져, 환경 이야기가 한층 더 말랑하게 느껴진다.

정다빈, 권성희 글 | 구희 그림 | 문운섭 감수

- ★ 한국과학창의재단 우수과학도서
- ★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미션 3 설명

- 바나나: 풀(딱딱한 껍질 줄기와 나이트가 없다.)
- 대나무: 풀(줄기 겉면이 딱딱하지만 목부 조직은 아니며, 나이트도 없다.)
- 야자수: 풀(딱딱한 껍질 줄기와 나이트가 없다.)
- 장미: 나무(여러해살이 나무로, 줄기를 잘라 보면 작은 나이트가 있다.)
- 선인장: 풀(나이트가 없다.)

미션 6 정답

[퀴즈 1] ㉠ / [퀴즈 2] ㉠ / [퀴즈 3] 생물 자원 / [퀴즈 4] X, O, X, X, O

